

국무총리행정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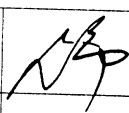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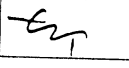
우 110-76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8-6898 / 전송 (02)720-2003

문서번호 국행삼 06065 -

시행일자 1996. 12. ()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취급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3년		
조정관		총괄심의관	
심의관			
기안	송재용		협조

제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철저 지시(국무총리지시 제 1996-17 호)

1. '96. 12. 5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 '96. 12. 10까지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96. 12. 20까지 이를 총괄·종합하여 국무총리실로 보고하기 바람.

(2) 아울러 환경부는 기 구성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계부처 협의체를 확대·보강하고, 실무대책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시·도 단위에서도 추진협의회 및 실무대책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특히, 내무부는 12월 반상회시 이번 대책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나. 각 부처는 매월 소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 일선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추진실적도 점검·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

다. 각 부처별 추진상황은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보고하시기 바람.

2. 아울러 12. 5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민간위원들의 의견 및 총리지시·당부사항을 함께 보내드리니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람.

붙임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1부
환경보전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재정경제원,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체육부, 총무처, 공보처, 농촌진흥청

국무총리행정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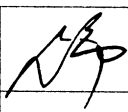


우 110-76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8-6898 / 전송 (02)720-2003

문서번호 국행삼 06065 - 152

시행일자 1996. 12. 9 ()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취급		행정조정실장	국 무 총 리
보존	3년		
조정관		총괄심의관	
심의관			
기안	송 재 용		협 조

제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철저 지시(국무총리지시 제 1996 - 17 호)

1. '96. 12. 5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 '96. 12. 10까지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96. 12. 20까지 이를 총괄·종합하여 국무총리실로 보고하기 바람.

(2) 아울러 환경부는 기 구성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계부처 협의체를 확대·보강하고, 실무대책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시·도 단위에서도 추진협의회 및 실무대책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특히, 내무부는 12월 반상회시 이번 대책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나. 각 부처는 매월 소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 일선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추진실적도 점검·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

다. 각 부처별 추진상황은 매분기 말 10일 전까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보고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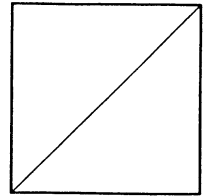
2. 아울러 12. 5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민간위원들의 의견 및 총리지시·당부사항을 함께 보내드리니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람.

붙임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1부
환경보전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재정경제원,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체육부, 총무처, 공보처, 농촌진흥청



議案番號	第 號	審 議
議決	1996. 12. .	
年 月 日	(第 回)	

'97「飲食物쓰레기줄이기」綜合對策(案)

環境保全委員會案件

提出者	關係部處合同
提出年月日	1996. 12. .

1. 議決注文

'97 「飲食物쓰레기 줄이기」綜合對策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과다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음식물의 生産・流通・所費段階에서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低減하고,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資源化 하기 위한 「飲食物쓰레기 줄이기」綜合對策을 樹立・施行하고자 함.

3. 主要骨子

- 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감량 義務化 사업장의 範圍를 확대하고, 住宅・觀光團地 開發事業時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함.
- 나. 채소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쓰레기誘發負擔金制를 모든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사료의 公共機關 優先購買를 실시함.
- 다. 「좋은식단제」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模範飲食店」을 활성화 하여 음식점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結婚式場 등에서의 飲食提供 抑制를 유도함.

- 라. 음식물쓰레기 處理施設 擴充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財政支援을 강화하고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계에 우선 지원함.
- 마.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共同收去 및 供給體系를 구축하고, 再活用窓口를 개설하여 수요처를 확대함.
- 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술 개발을 위하여 專擔研究機關을 지정·운영하고, 처리기기 綜合展示展을 개최함.
- 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97년을 「健全한 飲食文化 定着의 해」로 정하여 대대적인 캠페인 및 홍보·교육을 실시함.

'97 「飮食物쓰레기 줄이기」 綜合對策(案)

順 序

I. 음식물쓰레기 發生 및 處理현황

II. 그간 飲食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政府의 노력

III. 주요 問題點

IV. 對策 推進方向 및 重點推進課題

V. 推 進 方 法

I. 飲食物쓰레기 發生 및 處理現況

□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發生量은 하루 1만 5천여톤으로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

- 農漁村地域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퇴비·사료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都市地域의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처리하고 있음.
- 특히, 쓰레기 從量制 실시이후 일반쓰레기에 비해 음식물쓰레기의 감소는 매우 미흡

구 분	'91	'93	'95
생활쓰레기 발생량(톤/일)	92,246	62,940	47,774
음식물쓰레기(톤/일)	26,311	19,940	15,075
점 유 비 율	28.5%	31.4%	31.6%

□ 1人當 하루 음식물쓰레기의 發生量은 평균 0.34kg('95년)으로 OECD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이 배출되는 실정

※ 영국·프랑스 0.26kg/일, 독일 0.27kg/일

□ 음식물쓰레기의 主發生源은 음식점과 가정(83%)이며, 性狀別로는 채소류가 53.1%로서 주종

- 발생원 : 음식점 42%, 가정 41%, 대형유통시설 13%
- 성상별 : 채소류 53.1%, 어육류 18.6%, 곡류 14.7%

□ 이렇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95.4%가 埋立處理되고 있으며, 재활용되는 양은 하루 316톤으로서 불과 2.1%에 해당

II. 그간 飮食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政府의 노력

- ☐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난 '82년부터 「注文食單制」를 실시해오다 '92년부터는 「좋은식단제」로 전환하여 추진
- ☐ '93. 9월,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減量을 의무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95. 5월, 차관회의에서 關係部處協議體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토록 결정
 - '95. 7월, 환경부·보건복지부등 8개기관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III. 주요 問題點

- ☐ 과도한 상차림과 국물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食生活文化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실생활 속에서 개인의 습관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함
- ☐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特性(수분·염분·악취)
 - 水分含量이 80~85%로서 매우높아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수거·운반시 악취가 발생
 - 과다한 염분 함유(약 3%)로 퇴비화하기 어려움.
- ☐ 매립처리시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등 2차 環境汚染을 誘發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 소요
 - 소각시에도 발열량이 낮고 물기가 많아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보조연료 사용 필요

□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公共處理施設도 부족

○ 자원화에 관한 표준화된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公共處理施設도 初期普及段階로 체계적인 재활용이 미흡

⇒ 전체 農産物의 70% 이상을 輸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귀중한 食糧資源과 外貨浪費를 초래

IV. 對策 推進方向 및 重點推進課題

〈基本方向〉

- ◇ 음식물의 生産·流通·消費段階에서 쓰레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Source Reduction)
- ◇ 부득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단계별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堆肥·飼料등으로 최대한 資源化

〈推進目標〉

□ 2001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先進國 水準으로 줄이고 자원화 확대

	'95	2001
○ 1人當 排出量	0.34kg/일	0.27kg/일
○ 자원화비율	2.1%	21%

⇒

※ 매립·소각량의 31%를 감축하는 효과('95년 대비)

生活廢棄物 管理 基本原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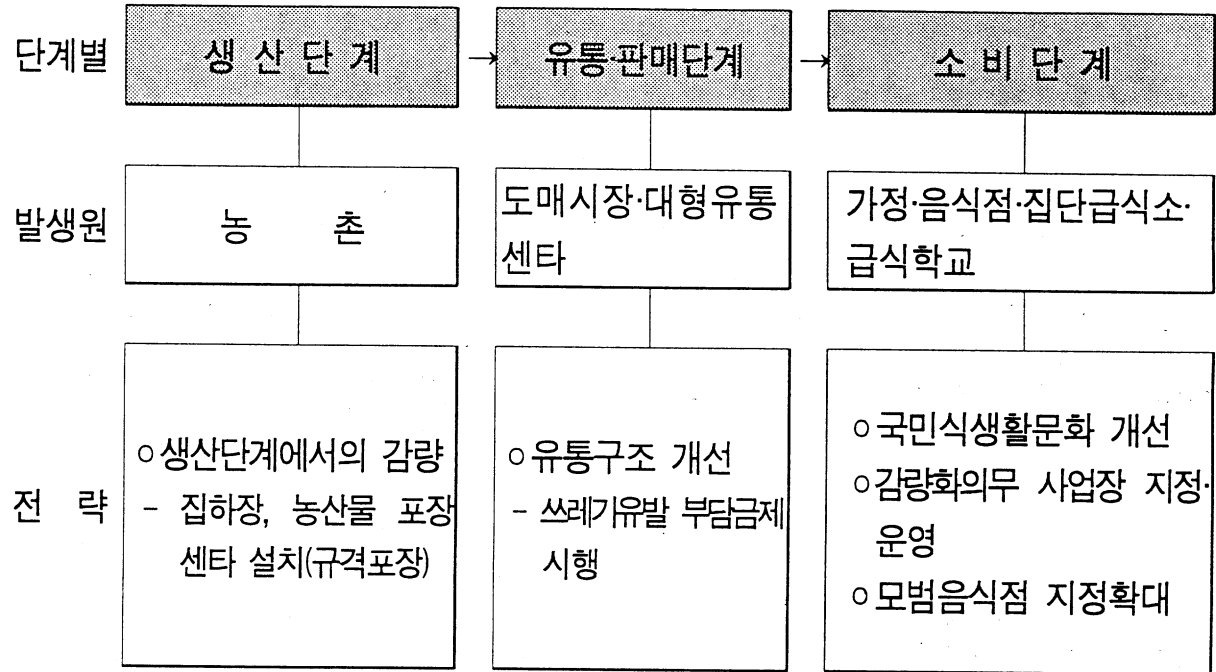
- ◇ 廢棄物管理法 제4조의 「自治團體 處理責任의 原則」에 따라
 - 毒性이 강한 有害廢棄物의 처리는 國家가,
 -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生活廢棄物의 처리는 自治團體가 그 처리책임을 지게 됨

- ◇ 飲食物쓰레기를 포함한 生活廢棄物의 積極한 管理는
 - 「發生地 處理」原則에 따라 自治단체장의 固有業務 領域에 속하는 것으로서
 - 市·郡·區별로 地域實情에 맞는 綜合처리시설 확충 및 매립·소각·재활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 ※ 수도권, 부산 등에서 젓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제한으로 국민적 관심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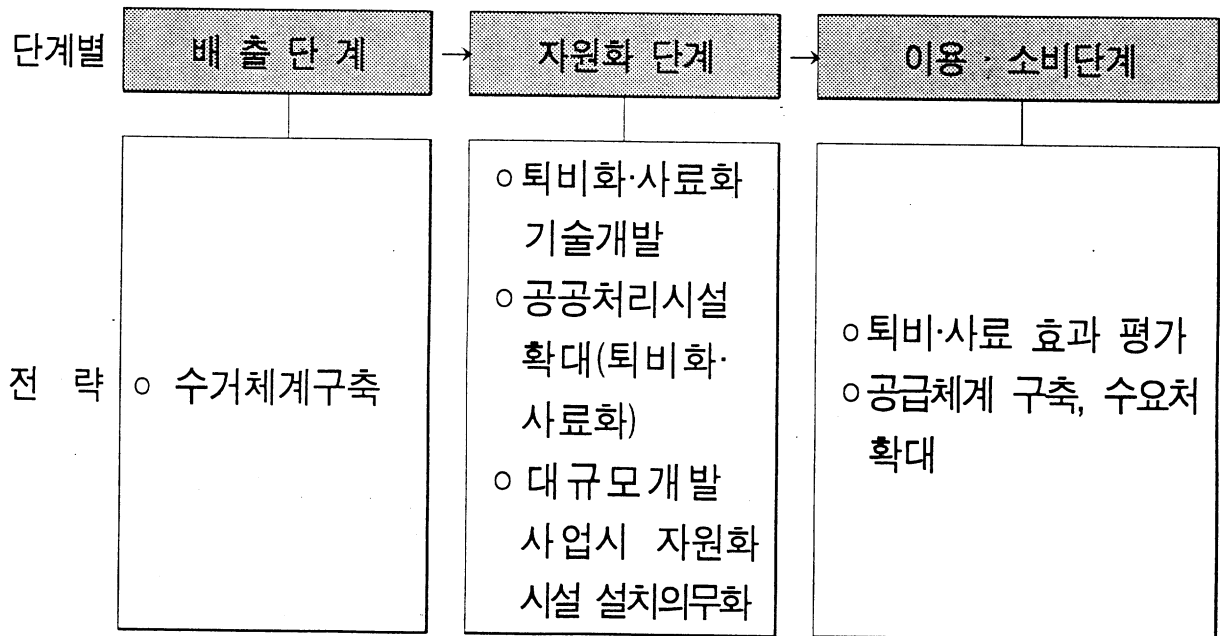
- ◇ 中央政府 次元에서 自治團體의 飲食物쓰레기 줄이기 추진노력을 強力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 ① 法的 · 制度的 支援事項,
 - ② 財政的 · 技術的 支援事項,
 - ③ 國民運動, 弘報 및 教育事項을 적극 발굴,生活改革次元에서 重點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管理戰略 >

□ 減量化



□ 資源化



1. 法的 · 制度的 개선

1-1. 음식물쓰레기 減量化 대상 擴大 및 관리강화(환경부,시·도)

-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義務化되는 대상사업장의 範圍를 擴大 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감량화 이행 지도·점검등 관리를 강화

	현 행	개 선
집 단 급 식 소 (학교,병원,공장등)	2,000인 이상	100인 이상(조례로50인이상)
식품접객업소	660m ² 이상	100m ² 이상(조례로33m ² 이상)
시장·백화점·호텔	제외	감량 의무화

※ 시행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97. 7. 1부터로 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조정

-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減量基準 설정 및 減量方法 다양화
 - 감량기준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량의 30% 이상, 감량 방법은 탈수, 건조, 발효, 소멸화, 재활용등으로 다양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조례 개정)

1-2. 住宅, 觀光團地 開發事業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환경부,건교부)

- 인구유발요인이 큰 대규모 住宅·觀光團地 개발사업에 대한 環境影響評價時 자원화시설 설치 조건 부여
 - ※ 「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法律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등 共同住宅 건설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자원화시설을 설치. 다만, 공공처리 시설 설치지역과 재활용 실시지역은 제외

- 1-3. 농수산물 도매시장 쓰레기誘發負擔金制 확대(농림부,시·도)
 - 농수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46개소)·공판장(86개소)에서의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 확대 실시(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배추등 6개 품목대상)
 - ※ '96. 6. 1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만 실시중
- 1-4.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사료의 公共機關 優先購買 사용
 -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95호) 적용
- 1-5.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公定規格 개선(농촌진흥청)
 - 현재 원료의 30%이하로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사용비율을 염분농도기준으로 대체하여 염분농도가 낮은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촉진(비료공정규격 개정)
- 1-6. 「좋은식단제」 확대 및 「模範飲食店」 활성화(보건복지부)
 - 좋은식단제를 全體음식점(43만개소)에서 실시토록 확대하고, 한정식·일식등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집중관리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優秀 실천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수도료 감면(30%), 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식품진흥기금) 등 행정적 지원 강화
- 1-7. 결혼식 및 리셉션 등 공공행사시 지나친 飲食提供 抑制(보건복지부)
 - 식사시간대에 개최되는 결혼예식시에는 간단한 음식(국수등)을 제공하고, 이외에는 간소한 답례품 제공 유도
 -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結婚式場 대여행위 단속
- 1-8. 음식물쓰레기 관련 統計의 檢證·내실화(환경부, 통계청, 시·도)
 - '96 폐기물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재활용 비율등 기초통계자료 검증

2. 財政的·技術的 지원

2-1. 國家的 次元에서 음식물쓰레기 處理施設 확충지원 (재경원, 환경부, 시·도)

- 2001년까지 4,67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시·군·구별로 資源化 施設 설치지원(국고 50%)

시설수	시설규모 (톤/일)	투 자 계 획 (억원)					
		계	'97까지	'98	'99	2000	2001
235	3,525	4,672	222	300	900	1500	1,750

- 再活用産業 育成資金 우선지원(환경부)
 - '97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450억원중 50억원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에 우선지원 조치
- 軍部隊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 확대(국방부)
 - '99년까지 198개소에 시설 설치('97년 64개소)
-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지렁이 飼料化 사업등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 지원(환경부, 시·도)
 - 경기도 여주군의 시범사례(15톤/일) 등 새로운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확산 및 지원방안 강구

2-2. 지방자치단체별 共同收去·供給體系 구축

- 음식물쓰레기의 체계적 收去體系 확립(시·군·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환경부)
 -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단독주택은 전용봉투를 이용하고, 공동주택·음식점은 고속발효기와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지정일에 일괄수거후 재활용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확립
 - ※ 가정용·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 제작·활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實踐指針」 제정(환경부)
 - 가정·음식점등에서의 구체적 배출요령, 수거용기 설치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보급
- 음식물쓰레기 및 1차발효 副産物의 체계적 공급·활용(자치단체)

< 서울시 예시 >

- 강동·강북·도봉·광진구 8,000가구는 경기도 양주군 퇴비장에 반입
- 노원구 4,000가구는 경기도 남양주군 양수리 유기농가에 공급
- 동작·송파·강동 7,400가구는 고양시 pilot plant에 반입 (5톤/일)

< 부산시 예시 >

- 가정용 발효통을 보급(30만세대), EM발효제로 발효시킨 후 김해, 양산등 농가에 공급(95톤/일)

※ 희망농가, 유기질 비료제조업체(150개소), 농협공동퇴비장(49개소), 화훼단지등 수요처 연결 활용

- 퇴비·사료용으로 직접 再活用하는 방안 강구(자치단체)
 - 시·군·구별로 농가(농장) 및 양묘장, 수목원, 농작물 시험장, 화훼단지, 산림, 가로화단, 가로수등 다양한 수요처 개발
- ※ 觀光農園(294개소), 週末農場(110개소)에서 직접 퇴비를 생산·시비하는 현장 체험의 기회도 부여

2-3. 음식물쓰레기 「再活用 窓口」 개설·운영(환경부, 농림부, 한국자원재생공사)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都市)와 수요처(農村)를 중개·알선하여 재활용 촉진

※ 都·農간 姉妹結緣등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有機農産物 판매·지원

2-4. 음식물쓰레기 專擔研究機關 지정·운영(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음식물 쓰레기 전담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단계별 특성에 맞는 저감방안 집중 연구·개발 및 보급

- 음식물쓰레기중 염분농도 및 냄새 저감기술 개발(농진청)
- 퇴비화 촉진을 위한 숙성발효 기술개발(농진청)
- 음식물쓰레기 혼합사료 개발(농진청)

※ 매년 합동으로 추진실적 평가·보고대회 개최

2-5. 음식물쓰레기 處理技術 研究開發 촉진(환경부, 생산기술연구원)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퇴비화·사료화기기 綜合展示展을 개최하여 시장정보를 교류하고 관련기술개발 촉진
- 감량화시설의 구조 및 성능규격에 대한 品質認證制를 확대하여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K마크)

2-6. 自治團體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 評價 및 재정적 差等 지원(환경부)

- '97년부터 자치단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차등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주요 國政評價課題로 선정하여 평가

3. 國民運動, 弘報 및 敎育 지원

3-1. 「음식물쓰레기 半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환경부,공보처)

- 1997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설정하여 언론사,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

3-2. 대대적인 飮食文化改善運動 추진

- 음식문화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음식업자 대표 등으로 「飮食文化改善運動本部」 발족 (보건복지부)
- 公職者부터 模範을 보이기 위해 「광화문 청사」·「과천청사」 등에서 실천홍보 및 직원교육 실시(총무처)
 - “점심은 간단하게, 저녁은 가족과 함께”

3-3. 공익광고 등을 통한 飮食文化의 改善 적극 弘報(공보처, 문체부, 정통부)

- 외국의 좋은사례등을 발굴하여 우리 음식문화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 개선 추진(공익광고, TV드라마 등 활용)
- 「114 안내」등 공공기관의 각종 案内電話 대기시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예절문화」책자 등 발간·배포

3-4. 大規模 給食機關에서의 음식물쓰레기 減量 실천

- 軍部隊·矯正機關에 표준식단제를 도입하고, 「음식 안남기기 운동」과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운영 (국방부, 법무부)

- 給食學校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지도(교육부)
 - 올바른 食生活習慣 敎育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과 개발·보급
 - ※ 중·고등학교의 「環境科目」 선택확대, 대입수능시 논술 주제 선택 유도
 -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학교 및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확대
 -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연수(협회)
- 공무원교육기관, 청소년수련기관 등 각종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敎育講座 개설(총무처, 문화체육부)

3-5. 소비자단체·여성단체등 民間次元의 운동으로 확산·전개 (환경부, 보건복지부, 재경원)

- 名譽環境監視員(18천명), 名譽食品衛生監視員(1,500명)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요원으로 활용
- 대중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여부에 대해 消費者團體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自律的 감시·評價 활동전개·지원

3-6.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優秀機關 및 團體에 대한 褒賞 (총무처)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크게 기여한 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유공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해 연 1회 포상실시